

2016 년

제 8 장 두 가지 종교, 두 가지 사역



대서울교회

“로고스를 입다”

그분이 예수 안에서 우리를 향하여 사랑을 드러내셨다. 하나님을 아는 우리의 짧은 수많은 요인들로 요동칠 것이다. 그러나 하나님이 우리를 아심은 절대적으로 고정불변이다.

□ 이것이 어떻게 우상숭배를 막는가?

스스로 쌓은 영적인 업적과는 상관없이 하나님이 예수 안에서 자신을 사랑하시고 맞아들이신다는 점을 확신하지 못하는 신자는 불신자보다도 불안정하다. 또한 하나님의 거룩하심과 자신이 지녀야 할 의에 관한 기독교적인 지식으로 인해 받는 지속적인 공격 때문에 무의식적으로 심하게 동요한다. 이러한 불안정은 자신의 의에 관한 과도한 방어적 주장과 다른 사람에 관한 방어적인 비판을 거만스럽게 드러낸다. 필사적으로 율법적인 바리새인의 의에 매달리고 시기와 질투를 일삼는 등의 죄가 그들의 근본적인 불안에서 터져 나온다.

(영적 생활의 역동성, 리처드 레블레이스)

□ 우리가 우상들은 만들어낸 이유는 하나님이 받아주시는가 불안해하기 때문이다. 우상들을 내세워 긍정적인 자상을 만들려고 애쓴다. 바울은 하나님 앞에서 스스로를 미화하거나 꾸밀 필요가 없을 복음이 보여준다고 일깨운다. 그분은 이미 우리를 아신다. 진정 그렇다면, 다른 이들이나 스스로의 인정을 받기 위해 우상을 만들 필요가 없다.

□ 우리 마음이 하나님을 향하고 있는가가 아니라, 하나님의 마음이 우리를 향해 얼마나 흔들림 없이 향하고 있는가가 기독교적 확신의 강력하고도 중심적인 기반이 된다. 우리가 "하나님이 아신 바" 된 존재임을 자각하기 시작한다면, 자신의 이미지를 부풀리거나 행위를 통해 그분 앞에 서고자 애쓰지 않을 것이다.

□우리가 예수를 알고 또한 예수께서 우리를 아심을 안다면, 우리는 그분을 즐거워하며 우리를 옹호 매려는 우상들을 치워버릴 수 있을 것이다.

목상을 향한 질문

1. 내가 숭배할 위엄이 가장 큰 우상은 어떤 것인가?
2. 하나님이 나를 아심이 어떻게 나를 더 굳게 세워주는가??
3. 하나님이 나를 아신다는 사실을 기억하는 것이, 우상을 숭배하려는 유혹에서 나를 어떻게 지켜 주는가?

가 고난을 통하여 그분처럼 되게 하시기 위함이다. 하나님은 선한 결과를 위해 우리의 고난을 활용하신다. 바울이 약함 덕분에 새로운 동료들을 만나고, 갈라디아에서 성공적으로 사역할 수 있었던 것처럼 환경을 활용하시기도 하고, 또 다른 경우에는 "선"하신 하나님께서 우리 성품 속에서 일하시기도 한다.

"내 은혜(너를 향한 무조건적인 나의 사랑)가 네게 족하도다."

□ 지혜를 발휘해서 계획을 잘 세워야 한다. 시간과 자원의 청지기가 되어 잘 활용해서 가장 좋은 열매를 맺을 수 있도록 계획해야 한다. 허나 바울의 사례는, 힘을 쭉 빼고 하나님께서 우리의 계획을 대폭 수정하실 수 있도록 내어드려야 함을 가르쳐준다.

□ 하나님은 종종 우리 혹은 주변 사람들의 삶에서 실수, "재난", 곤경, 무산된 계획을 통해서 우리의 정교한 행동과 계획보다도 훨씬 더 선하게 역사하셨다.

★ 원수?

그들은 바울을 원수의 대리인처럼 보기 시작했다. "원수가 되었느냐"고 말할 때(4:16), 이것은 그들이 바울을 적대자로 대하기 시작했다는 뜻이다. 이 편지에서 문제로 삼고 있는 믿음과 선행 교리를 놓고 의견이 갈라졌다, 바울은 "진리"를 말해주었지만, 그들과의 관계는 차갑게 식어버렸다.

바울은 왜 굳이 12-16절을 편지에 포함시켰는가? 그의 메시지와 사역이 달라지지 않았는데도, 그를 대하는 교회의 태도는 달라졌음을 보여주려는 것이다. 이제 그들은 바울과는 다른 목표와 수단을 생각하며 다른 메시지를 전하는 사역자들의 영향 아래 있기 때문이다.

★ 두 사역, 두 목표

□ "그들에게 대하여 열심을 내게 하려"(갈 4:17)

"그들은 여러분에게 아침하여 여러분을 크게 보이게 하다가, 결국에는 여러분으로 하여금 그들에게 아부하고 그들을 크게 보게 하려는 겁니다.

■ 복음의 에너지로 하는 사역 : 그 지도자에게 정서적으로 의존하는 추종자들이 없어도 된다. 구원이 믿음을 통해 온다고 확신하기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려고 애쓴다.

■ 거짓 선생 : 이들은 구원을 확신하기 때문에 사역하는 것이 아니라 구원을 확신하고 획득하기 위해서 사역을 한다. 즉, 감정적으로 자신들을 찾는 이들을 거느려야 직성이 풀린다는 뜻이다. 그들에게 순종하고, 그들을 우러러보며, 결국은 그들에게 목을 매는 회심자와 제자들이 이어야 한다. 그럴 때에만 자신들은 하나님이 참으로 복 주시고 사랑하시는 좋은 신자들임을 확신할 수 있다.

□ 바울은 "내 형상을 닮으라"고 하지 않고, 자신과 마찬가지로 그리스도를 따르게 한다. 그는 사람들이 바울 자신이 아닌 그리스도에게 의존하길 원한다. 그는 그를 대적하는 자들과는 달리 갈라디아 신자들에게 듣기 좋은 말을 하지 않는다. 그는 칭찬을 받기보다는 복음을 단단히 붙들